

#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연구의 집중(Convergence)에 관한 고찰

尹 惠 暎\*

## < 목 차 >

- |                   |               |
|-------------------|---------------|
| I. 서론             | 4. 공통 이론 모델   |
| II. 두 학문의 패러다임 비교 | IV. 실증적 연구 사례 |
| III. 집중의 네 가지 모델  | V. 결론         |
| 1. 패러다임 변화 모델     | 참고문헌          |
| 2. 교차 모델          | 영문초록          |
| 3. 중첩 모델          |               |

## I. 서론

문헌정보학분야는 현재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전환점에 와 있다. 과거의 종합학문으로서 인접의 여러 학문과의 모호한 관계에서 벗어나 문헌정보학의 영역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다른 학문과의 관계를 좀더 명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정의하기 위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과 밀접하게 연관된 학문인 커뮤니케이션연구에 대한 관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980년대 중반이후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연구에서는 이 두 분야사이의 집중(convergence)과 분열(fragmentation)에 관한 주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sup>1)</sup> 이 두 분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1) Rice, Ronald D. "Citation networks of communication a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1978-1987," Proceedings for the 53rd ASIS Annual Meetings Vol 27,(1990). p.208.

야연구자들의 공통되는 주제영역은 지식의 갭, 비공식 연구집단, 혁신의 발산, 커뮤니케이션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 정보추구행위, 정보이론, 시스템 이론, 정보사회이다. 더우기 이러한 주제들은 두 분야의 학술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어떤 학자들은 커뮤니케이션학교에서 정보학학교로 소속을 옮기기도한다.<sup>2)</sup> 또한 몇몇 기관들은 학문적인 링크를 공식화했다. 예를 들어 하와이대학(University of Hawaii)는 1981년 4개의 학과 즉 문헌정보학, Dicision Science, 컴퓨터정보학, 커뮤니케이션학과가 하나의 학제적 박사과정 프로그램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함과 동시에 계속적인 연구끝에 1986년부터 학생을 모집했다.<sup>3)</sup> 럿거스대학(Rutgers University)은 1982년 도서관학, 매스 미디어, 정보학,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학과들을 한 학교로 통합하여 학부, 석사, 박사과정을 설치했는데 이중 박사과정은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연구의 학제적인 프로그램이다.<sup>4)</sup>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UCLA)에서 문헌정보학과의 세명의 교수들은 커뮤니케이션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대학의 커뮤니케이션연구프로그램에서 합동으로 가르친다.<sup>5)</sup>

이러한 각각의 가능성들은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연구의 주제문제와 제도상의 구조에서 집중(convergence)을 향한 추세를 엿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향이 정확하다고 판명이 되면, 이 두 분야에서 집중의 발전은 두 분야의 깊숙한 패라다임의 중복을 반영할 것이다. 또한 교수 채용에서, 연구재원의 출처에서, 교과과정 디자인에서, 출판물의 판로에서, 전문학회의 프로그램과 회원의 구성에서, 대학학과의 조직적 구조에서의 변화

2) Borgman, Christine & Schment, J. R. "Information science and communication research," in Information Science : The Interdisciplinary Context, J.M. Pemberton & E. Prentice(ed), New York , Neal-Schuman. 1990. p.43.

3) Jackson, M. M. "Interdisciplinary doctoral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Hawaii," in Information Science : The Interdisciplinary Context, J. M. Pemberton & A.E. Prentice (ed), New York, Neal-Schuman, 1990. p.92.

4) Anderson, J.D. & Belkin, N. J., etc. "Information science at Rutgers : establishing new interdisciplinary connections," JASIS Vol. 39, No. 5.(1988). p.327.

5) Borgman, c. & Schment J. R.,(1990). p. 43.

를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연구의 집중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두 학문의 패러다임을 비교한 후 집중이 나타나는 여러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또한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연구의 계량서지학적 방법을 통한 집중의 분석을 하고자 한다.

## II. 두 학문의 패러다임 비교

Ruben은 1987-1989의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연구분야 각 5개의 주요학술지에서 나타난 가장 많은 수의 빈도를 가진 단어를 순위별리스트로 제공하여 두 분야의 영역을 규명함으로써 패러다임을 비교하고자 하였다.<sup>6)</sup> 문헌정보학분야의 학술지로는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이후 ARIST라 칭함),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이후 JASIS라 칭함),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이며, 커뮤니케이션분야의 학술지는 Communication Monographs, Communication Research,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nim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Journal of Communication이다.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표제에서 자주 나타나는 단어 :

^시스템(예를 들어 전문가, 평가, 효율성)

^검색과 이용자(예를 들어 검색, 서비스, 온라인)

---

6) Rubin, B. D. "The communication-information relationship in systemtheoretic perspective," JASIS Vol. 43, No. 1,(1990). p.15.

^배경(예를 들어 도서관, 학문, 교육)

^문헌과 데이터베이스(예를 들어 온라인, 서지, 교과서, 책, 학술지, 목록)

^경영과 사서(전문가)

^기술(컴퓨터)

커뮤니케이션 학술지의 표제에서 자주 나타나는 단어 :

^미디어와 기술(예를 들어 대중, 텔레비전, 통신)

^효과와 이용(예를 들어 순응)

^상호작용과 과정(예를 들어 대인영향)

^배경(예를 들어 대인, 관계, 사회적, 기관, 지역사회, 공공의, 정치적인, 대중, 문화적)

^메시지(예를 들어 정보, 뉴스, 대화)

^시스템

재미있게도, 정보는 커뮤니케이션 학술지의 표제에서 여섯번째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어이지만, 커뮤니케이션은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표제에서 단지 네번 나타난다.<sup>7)</sup>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Paisley가 커뮤니케이션분야와 그 관련분야의 학술지의 표제를 1985년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online을 통해 조사한 것이 있는 바, JASIS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은 30개의 개념 중 24번째를 차지하고 Communication Research에서 정보는 30개의 개념중 다섯번째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sup>8)</sup>

이러한 종류의 표제분석은 두 분야를 비교함으로써 서로 관련있는 최근 관심의 주제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는 사용하는데 있

---

7) Rubin, B. D.(1992). p.17.

8) Paisley, William."Information science as a multidiscipline," in Information Science : Interdisciplinary Context, J. M. Pemberton & A. E. Prentice, New York, Neal-Schuman, 1990. p.16.

어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다. 두 개의 언어집단에서 용어를 비교할 때 여러가지 용어들은 비슷한 개념을 뜻하고, 반대로 같은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표제분석은 두 분야 내의 내재된 좀 더 기본적인 패러다임의 차이와 유사성을 분석하는 데 이타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도표1은 이러한 종류의 개념과 주제비교를 나타내며 각각의 패러다임이 서로서로를 보충(complement)하고 보완(supplement)하는 영역의 조사를 촉진한다.9) 이러한 비교할 수 있는 틀(framework)를 개발하는 목적은 이 두 분야에 내재된 기초적인 관계를 규명하고 분명하게 하기위해서이다.

#### 이론적 초점

도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헌정보학은 서비스, 시스템, 기관을 포함하는 정보의 전달에 기본적인 초점이 모아지며, 커뮤니케이션이론은 '의미의 구성(construction of meaning)'과 행위와 관련된 인간메시지(또는 정보)의 성격(the nature of human message (or information) related behavior)에 주어지고 있다.

'문헌정보학 시각'은 자주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식 갭을 메우기를 필요로하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용자에 의해 정보의 검색, 전송과 이용을 강조하는 -정보수신자(그리고/또는 시스템)와 송신자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성격과 힘에 좀 더 유효한 견해를 가지며, '커뮤니케이션연구시각'은 개인 상호작용할 때 정보를 전달하거나 검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우기 인간간의 상호작용은 관계, 그룹, 조직, 문화 그리고 사회에서의 참여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자에 의한 의미의 창조를 포함한다.

---

9) Rubin, B.D. (1992). p.17.

이러한 이론적인 구별은 잠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론적인 구별은 가끔 매우 다른 연구안건과 학제적인 시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영역	문헌정보학 패러다임	커뮤니케이션연구 패러다임
주요 이론적 초점: 주요 연구 초점: 코드/채널:	정보전달 문헌과 시스템 중재 언어 중재 비언어	의미의 구성 상호작용과 행위 대인 언어 대인 비언어 중재 언어 중재 비언어 공식절차변화 중대성변화
시스템/네트워크 시각:	공식적, 관리적	개인 성장, 관계 개발 뉴스와 오락 조직적 과정, 사회화 문화적 발전
기능/이용/결과:	정보이용, 문제해결 정보조직검색적합성 정보시스템, 서비스효율	

도표1.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연구 : 패러다임 비교

#### 연구초점/배경

문헌정보학에서 운영적 강조는 특히 도서관의 문헌(정보)과 시스템에 그리고 이용자와의 인터페이스에 일반적으로 두어지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연구에서 의미구성과 더불어 이론적 관심사는 주로 관계, 그룹, 조직, 사회내의 그리고 국제적으로 개인간의 상호작용과 행위에서의 그리고 배경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운영적 관심에 이른다.

#### 채널/코드

문헌정보학에서는 언어(인쇄)와 도표(삽화, 그래프, 또는 이미지)를 활용하고 시각 코드를 강조하는 중재된 채널(주로 '대중' 중재, 예를 들어 도서, CD-ROM, 마이크로피쉬, 또는 컴퓨터)에 우선도가 주어진다. 커뮤니케이션연구는 주로 기술적으로 중재된 상호작용과 마찬가지로 면 대 면 채널(

face-to-face(interpersonal) channels)를 조사연구한다. 초점은 언어적 그리고 /또는 비언어적 코드가 될 것이다 (시각,촉각,청각, 후각, 미각).

#### 시스템/네트워크 시각

문헌정보학연구는 정보전달이 안내하는 목적인 공식적인 시스템을 강조하는 반면, 커뮤니케이션연구는 공식적으로 구조화되지않은 시스템을 조사하고 거기서 상호작용은 타인간 또는 매스컴간의 일상적인 대화와 같이 반드시 정보전이 목표를 가지지 않는다.

#### 기능, 이용 그리고 결과

위에서 기술된 시각에 일관성을 가지면, 문헌정보학연구는 측정과 평가의 결과를 강조한다:정보전달기능의 효율성 : 정보 축적과 검색, 업무 완성 또는 문제해결의 적합성 : 또는 정보를 조직하거나 배포하는 그리고 이용자 문제해결에 대한 시스템과 서비스의 활용과 가치에, 커뮤니케이션연구는 업무 활동과 관련하여 이용된 정보과 결과에 따라 개인적인 성장, 관계 개발, 뉴스 그리고 오락, 조직 개발, 사회화 그리고 문화적 개발을 포함한 상호작용의 의도된 그리고 비의도된 결과를 연구한다.

### III. 집중의 네가지 모델

서론에서 얼핏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연구 분야는 공통된 연구 주제, 공통된 연구자를 공유하고, 공식적이고 조직적인 링크를 가진다. 이 두 분야가 집중하고 있다면, 이러한 경향은 여러가지 방법에서 나타날 것이며 여기서는 네 개의 집중이 나타나는 모델을 제시하고 그 유효성과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sup>10)</sup>

## 1. 패러다임 변화 모델

Kuhn에 의하면, 학문은 패러다임의 재조사를 강요하는 중단, 즉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는 인정된 일반적인 이론 또는 패러다임 아래 연구된다. 그러므로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연구에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도표2에서는 이 두 분야의 잠재적인 통로를 고찰한다.

도표2의 A부분은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각각 더 접근하지도 멀리가지도 않는 평행으로 가는 두 분야를 보여준다. B부분은 두 분야가 하나의 통합된 분야로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C부분은 두 분야가 통합되지만 통합은 일시적이고 미래에는 다시 갈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의 전과 후의 부분은 통합의 기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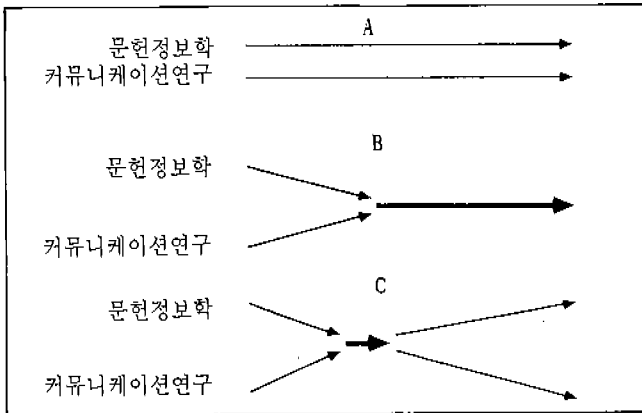


도표2. 패러다임 변화 모델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 연구 두 분야는 공통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 지식의 갭, 혁신의 발산, 비공식 연구집단과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는 정보과학자와 커뮤니케이션학자 양쪽의 연구를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다. 더

10) Borgman, C. & Schement, J. R. (1990). pp. 43-58.



우기 이 두 분야의 학자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현상에 관련되는 주제를 함께 연구해왔다. 정보의 수집, 이용,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현상을 광범위하게 설명하는 개념적인 구조로 이론들을 공통으로 조직하는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연구의 새로운 시각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연구의 통일화된 패러다임을 위한 지표로서 공통의 학문, 공통학문연구위원(cross-disciplinary research panels), 공통의 문제, 두 학문분야의 이론가들이 있다.

공통의 학문 즉 정보학자와 커뮤니케이션연구자들이 유사한 문제 또는 내용에 대한 학술지 기사를 출판하는 정도는 단일화된 패러다임에 대한 집중의 한 지표를 제공한다. 이 척도는 도표2의 A부분은 해당되지않고, B와 C부분은 구분하지 못한다. 하나의 회의프로그램 또는 연구재원을 구성하는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연구 두 분야에서 온 학자들은 주제의 공통된 영역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으며, 이 지표는 도표2의 A부분은 거의 해당되지 않고 B와C부분도 구분하지 못한다.계속되는 공통 이론 질문은 이론의 유효성과 패러다임형성의 방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B부분에 해당한다. 집중의 기초를 형성하는 정보사회이론을 위해 문헌정보학,커뮤니케이션 두 분야는 Machlup, Bell, Porat, Ruben과 같은 적극적인 정보사회이론가들을 필요로 하며 도표2에서는 A와 C부분에 적합하지 않다.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의 학문들이 패러다임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 두 분야에 대한 영향으로는 첫째 정보의 수집, 이용,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단일한 시각을 주게 되므로 정보학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학자들은 특정연구에서 상호배타적인 문제를 추구하지만, 같은 패러다임 우산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둘째,향상된 개념화로서, 정보,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청중, 이용자,그리고 미디어와 같은 두 분야의 중요한 개념정의는 일반적으로 각 분야 내에서 같고, 두 분야에서 대조되는 정의를 가지지는 않는다. 셋째.연구문제

의 우선순위로써 단일한 패러다임은 연구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립함으로써 연구분야에 대한 개념적인 경계선을 재정리할 것이다. 내제, 가능한 패러다임 후보이다. 하나의 후보는 정보사회이론으로 부터 출현할 것이며, 정보사회에 대한 문헌이 아직 한 패러다임을 구성하지 않을지라도 Machlup, Bell, Porat과 Ruben 은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의 시각은 모든것을 포함했고 정보의 이용과 커뮤니케이션의 기초에서 다양한 범주의 현상(노동의 성격, 단계의 발전, 기술적인 변화, 주요 관계, 정치적인 관리)을 설명하고 있으며,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연구 두 분야의 많은 영역에서 문제되는 시각을 제기함으로써 패러다임을 위한 전제를 마련했다. 그러나, 정보사회이론은 아직 일반적으로 인정된 패러다임에 도달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정보사회이론을 인용하는 많은 기사들은 특정연구문제를 조직하는 수단으로서보다는 개념에 대한 이유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작가들은 가끔 반박의 가정들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어떤이들은 정보기계가 사회변화를 일으키는 기술적으로 결정적인 입장을 가진다. 다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그러한 해석을 반대한다. 한 그룹의 학자들은 정보는 사물(thing)또는 공공재(commodity)이고 자연히 재산으로 되는 전제에서 정보의 이용을 연구했다. 또다른 그룹은 정보는 자연회 공공자원이고 재산으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정보의 진정한 가치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토론은 심해지고 매우 재미있는 문제를 도입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인정된 패러다임이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 2. 교차모델

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의 집중은 시간에 따른 개개 연구자들의 이주에서 나타난다. 개개 연구자들은 재직중에 수많은 주제연구를 수행하면서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연구 분야사이를 넘나든다. 다른 분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그들 각각의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을 동안 그들의 불충분한 비율이지만 각 분야내의 중심경향의 이동을 촉진시킬 것이다. 도표3은 교차모델을 나타낸다.

많은 수의 학자들은 재직중에 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 두 분야에서 학문을 연구했다. 예를 들어 Rogers는 시골사회학(Rural sociology)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연구생활을 시작했다. Rogers는 개혁의 발산에 관한 저작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발산이론은 두 분야의 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라디오, 텔레비전, 태양에너지, 정보기술, 의학혁신을 포함하고 있다. 또다른 학자인 Paisley는 scientometrics, 정보검색시스템의 응용, 정보추구행위, 커뮤니케이션운동 그리고 미디어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과 같은 주제를 연구했다. 그는 이제 전자출판물을 연구한다. Martin은 인간/컴퓨터상호작용을 연구한 초기의 커뮤니케이션연구자이고 이제는 정보학분야에서 정보정책연구를 하고 있다. Dervin은 정보추구주체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했던 학자이지만, 정보학프로그램과 커뮤니케이션프로그램 두 분야에서 가르치고 있다. Rogers 와 Dervin은 그 연구에 대한 협회의 관심을 반영하는 그 학문에 대한 주된 학술적인 협회인 국제커뮤니케이션협회(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의 회장을 역임했다. Borgman 은 정보시스템디자인, 정보추구행위, 그리고 Scientometrics에서 연구를 시작했으나 이제는 도서관자동화, 인간/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을 연구한다. Schement는 매스커뮤니케이션연구에서 정보사회연구로 옮겼고 커뮤니케이션과 문헌정보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다.

## 문헌정보학 커뮤니케이션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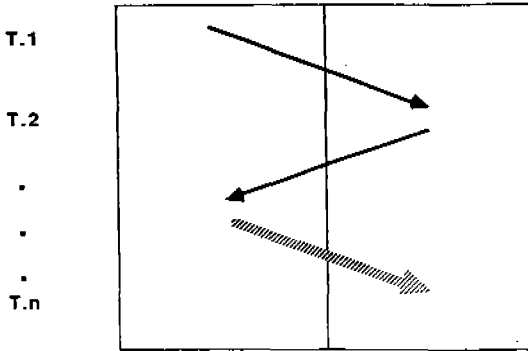


도표3. 개개 연구자들의 교차모델

이와 같은 교차모델은 학자들이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이동하고 연구재직중에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심장한수의 학자들이 이동하지만 그 비율은 그 분야에서의 진정한 이동을 일으킬만큼 충분치 않다. 교차의 양은 그 분야의 학제적 지식의 척도이고 집중에 대한 잠재력을 제공한다.

시간에 따른 개개 학자들의 인용패턴은 개개 학자들의 연구분야, 출판된 학술지와 회의록 그리고 공저자들의 학문적인 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 그 자신의 분야와 연관된 발표광장에서 계속해서 발표하고 그 다음 다른 학문과 연관된 발표광장에서 발표하는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수많은 연구자들이 발견될 것이다. 또는 그 두 학문과 같은 발표광장에서 정기적으로 출판하는 몇몇 학자들 가운데서 유형을 발견할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공저자들의 학문적 관계에서 이동을 발견할 것이다. 인용패턴에 따르면, 몇몇 학자들은 그들의 재직초기에 한 학문의 전문학회에 관계하지만 후에 다른 학문의 학회에 가입하기도 하고 재직중 두 학문의 학회와 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또한 교수 채용에 있어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보학으로

또는 그 반대로 학과를 옮기는 교수의 빈도를 평가할 수 있다. 학술지의 편집진으로 구성되는 학자들의 학문분야는 시간에 따라 변할 것이다.

학자들이 재직중에 한 학문에서 다른 학문으로 이동을 한다면 각각의 분야에 대한 영향으로는 학생들의 상호교육, 연구재원후원기관의 변화, 학술지의 내용과 편집정책에서의 변화,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회의내용과 범위에서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한 학문에서 교육받은 학자들이 다른 학문을 가르칠 때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처음학문에서 두번째교실로 아이디어를 가져올 것이며, 이것은 두 학문들을 보다 밀접하게하여 아이디어의 상호풍부를 가능케한다. 하나 또는 두 세개의 연구재원 후원기관을 가진 학자들은 연구영역을 옮길 때 그들의 연구후원기관을 따라서 변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초기의 기관에 연구재원정책을 변화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또한 편집자들과 비평가들은 관심분야의 변화를 인지하게 되므로 그 분야의 적절한 학술지가 되도록 중심을 옮길 것이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회의의 내용과 범위에서의 변화는 회의프로그램을 수집하고 논문을 제출하는 영향력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후원기관과 학술지에 따라 그들은 조직의 성격을 변화하고자 할 것이며, 또한 이들의 요구를 지지하는 새 조직을 찾아낼 것이다.

### 3. 중복모델

세번째모델은 분야들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간단히 중복되는 중복모델을 도표4에서 보여준다. 두 분야가 수많은 공통적인 연구영역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각각의 분야는 그 분야 특유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두 분야를 망라해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그 교차점에 빠진다. 여기에는 혁신의 발산, 정보추구행위, 지식 갭, 정보정책, 정보사회와 같은 주제가 있다. 문헌정보학이 두드러지는 부분에서는 목록과 분류, 정보검색기법과 도

큐멘테이션과 같은 주제가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연구가 명확한 부분에서는 대인커뮤니케이션(이것이 때때로 도서관참고업무에서 응용이 되지만), 매스 커뮤니케이션효과,조직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주제를 발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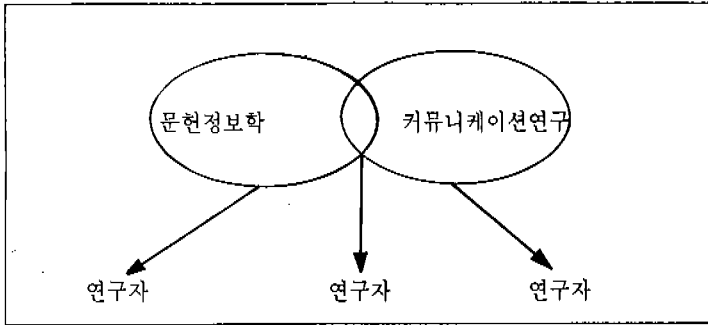


도표4. 중복모델

중복모델은 어떤 기초적인 변화가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더우기 두 분야사이에서는 중복이 항상 있어왔다. 중복영역이 현저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중복분야는 정보행위, 정보정책, 그리고 정보기술을 포함한다.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의 학문은 고유의 주제들이 각각의 분야에 배타적으로 남아있지만 중복되는 주제영역을 가지고 있다면, 출판형태, 교수채용유형, 교과과정에서 그리고 그 분야의 기초영역에서 구분할 수 있다. 그러한 중복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학술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중복의 특수영역, 교과과정에서 중복의 특정영역, 중복영역의 학자들의 연구와 교수영역, 각 분야의 역사적 기초가 있다

학술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중복의 특수영역은 각 분야의 중복되는 주제와 각 분야의 유일한 주제를 조사함으로써 규명될 수 있다. 또한이 주제들이 계속해서 중복영역에 속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주

제를 조사할 수 있다. 즉 시간에 대해 일관성 있는 중복인가 아니면 각 연구자들의 세대에 따른 변화인가? 교과과정에서 중복의 특정영역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연구 교과목 프로그램을 조사할 수 있다. 중복모델이 효과가 있다면,교차학자들이 출판과 교수에서 중복의 같은영역에 속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한 분야의 역사는 관련된 학문에서 그 기초에 대한 명확한 가치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분야들의 정의는 또한 분야내에서 그리고 관련되는 것에서 경계를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들 중 각각은 각 학문에 의해 제기된 대로 중복의 인지된 영역을 관찰하는 유용한 소스가 될 것이다.

이러한 중복모델은 두 학문에 대해 몇 가지 영향을 가진다고 예상할 수 있다. 중복영역에서 학과들은 그 분야의 학문에서의 학교출신교수 또는 상호보완적인 학문의 학교출신교수 양 쪽분야에서 찾는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배경의 자료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한 학문의 유일한 범위한 영역에서의 학술적인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는 배경연구가 한 학문의 발행물내에서만 유일하게 발견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반대로 중복되는 그리하여 다학문분야에서 행해진 연구는 이론적이고 경험론적인 배경을 위해 관련된 학문을 통해 좀 더 광범위하게 탐색해야한다.재원의 출처에서 그리고 문헌후원의 출처에서 응용된 유사한 유형을 예상할 수 있다. 한 학문에 유일한 영역안에서 연구할때 연구재원의 출처는 잘 정의되는 것같다. 학제적인 영역에서 연구자는 추구하는 재원의 더 혼란스럽지만 다양한 출처를 가질 수 있다. 중복연구에서 교과과정내용은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내에서 합동 또는 상호열거되는 교과목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4. 공통 이론 모델

도표5의 공통 이론 모델은 두 분야가 학부과정, 개개 연구자, 그리고 심지어는 특정연구주제에서의 수준에서는 분리되지만 각 분야는 지식의 총체에서 좀더 일반적인 이론을 이끌어낸다. 사실, 이론은 여러가지 다른 연구방법과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방법으로 응용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연구를 인용하는 것이 아닌 공통된 문헌을 인용하는 두 그룹을 발견할 것이다.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 두 분야에서 공통적인 수많은 이론의 가능성은 이 두 분야를 통합하는 패러다임의 거대한 잠재력속에 내재하고 있다. 정보학자들과 커뮤니케이션연구자들은 같은 이론적 관심을 가진 학자를 규명함으로써 관련분야에서 동료로 발견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한다. 참으로 공통이론에서 연구문제를 이끌어낸 학자들은 그 특정연구주제의 다양성에 상관없이 같은 이론의 시각을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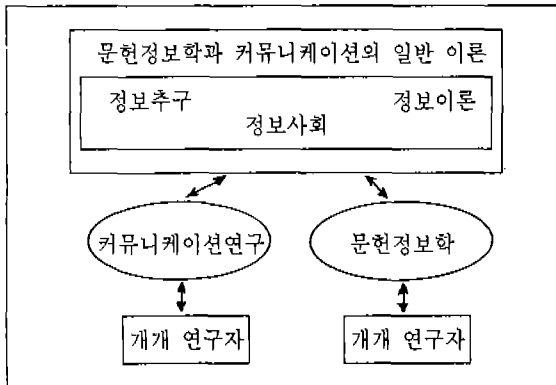


도표5. 공통이론모델

여러가지 방법으로 학제적인 연구를 실행하는 학자들의 공통적인 이론의



증거는 혁신의 발산, 태도변화, 시스템이론, 정보이론 논고의 인용유형에서 쉽게 발견된다. 이러한 공통이론의 증명은 이론의 정립을 향한 개발을 보여준다. 또한 거리가 먼 분야에서 같은 이론에 대한 내용이 많으면 두 분야가 집중하고 있다는 가정을 강화할 것이다.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공유이론이 많으면 많수록 집중이 더 많다.

공통이론모델의 영향으로는 두 분야 학자들의 학술지에서 공통의 핵심을 발견 할 것이며, 공통이론의 응용을 비교하는 합동학술결과를 가질 것이다. 두 분야는 공통의 이론이며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할 것이고 집중하기 시작할 것이다. 두 분야가 공통의 이론이지만 같은 문제에 결코 응용할 수 없다면, 이 분야들은 평행이 되고 결코 집중되지않을 것이다.

#### IV. 실증적 연구사례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연구의 집중의 관계는 인용을 통한 연구로써 규명될 수 있다. Barnett & Fink, Paisley는 1-3년에 이르는 작은 규모의 데이터셋트를 사용했고 1983년 이전의 데이터를 활용했다.<sup>11)</sup> 그리하여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연구의 상호인용을 규명해 낼 수 없었다. Paisley는 1980년 커뮤니케이션 분야와 그 관련분야의 학술지들의 상호인용을 연구했는데 문헌정보학 학술지와 커뮤니케이션 학술지의 상호인용은 단 한 건도 없었다.<sup>12)</sup> 물론 Paisley의 연구는 1980년 한 해동안의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했고 문헌정보학의 학술지도 단지 3종류(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JASIS, Journal of Documentation)만이 포함되었다는 제한점

11) Borgman, C. & Rice, R. E. " The convergence of information science and communication : a bibliometric analysis, JASIS Vol. 43, No. 6,(1992). p. 409.

12) Paisley, William. (1990). p. 15.

이 있다. 최근의 Borgman & Rice의 연구는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학 문사이의 상호인용관계를 잘 드러냄으로써 시간에 따른 학문구조의 경향과 두 학문간의 링크를 잘 나타내고 있다.<sup>13)</sup>

Borgman과 Rice의 연구는 1977-1987의 각 11년 동안의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SSCI)의 journal citation reports(JCR)에서 57개의 문헌정보학 학술지와 20개의 커뮤니케이션연구 학술지에서 얻어진 인용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두 학문간의 상호인용은 시간에 따라 약간 증가하며 일반적으로 2-3개의 특정학술지와 연관이 있었다.

도표6은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분야에서의 학술지 인용 링크를 나타낸다.<sup>14)</sup> 각각의 학문분야에서 인용된 학술지의 수를 보면 문헌정보학의 학술지는 1984년에 55개의 피크와 함께 1977년에 40개에서 1987년에는 48개에 이른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학술지는 1985-1986년의 19개의 피크와 함께 1977년에 학술지 12개로부터, 1987년에 18개를 드러낸다. 또한 두 학문분야내의 인용 링크에서 문헌정보학은 1983년의 511개의 피크와 함께 1977년에 266개에서 1987년에는 534개에 이르고, 커뮤니케이션분야는 1983년에 92개로 피크였고, 1977년에 49개에서 1987년에 84개가 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학술지가 다른 학술지의 기사를 인용하는 현상이 전반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3) Borgman, c. & Rice, R. E. (1992). pp. 397-411.

14) Borgman, C. & Rice, R. E. (1992). p.404.

Year	Disc.	No. Journals	Percent journals with links	No. links	No. links/journal
1977	Comm	12	23	49	4.1
	IS	40	77	266	6.7
1978	Comm	10	19	53	5.3
	IS	43	81	317	7.4
1979	Comm	13	21	62	4.8
	IS	48	79	392	8.2
1980	Comm	14	23	65	4.6
	IS	48	77	440	9.2
1981	Comm	13	22	62	4.8
	IS	45	78	422	9.4
1982	Comm	15	23	69	4.6
	IS	49	77	481	9.8
1983	Comm	17	26	92	5.4
	IS	49	74	511	10.4
1984	Comm	16	23	83	5.2
	IS	55	77	544	9.9
1985	Comm	19	28	83	4.4
	IS	50	73	538	10.8
1986	Comm	19	27	89	4.7
	IS	52	73	553	10.6
1987	Comm	18	27	84	4.7
	IS	48	73	534	11.1

\* IS : 문헌정보학  
Comm : 커뮤니케이션 연구

도표6.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학술지 인용 링크

두 학문의 관계는 그 관계에 포함된 인용의 전체수를 나타내는 인용 강도(Citation Strength)로 표현된다. 도표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문헌정보학 학술지가 커뮤니케이션 학술지에 대한 인용강도는 1977년에 0으로부터 1980년에 35개의 피크에 이르고 1982년에는 25개 그리고 1986년에 37개이고, 1987년에 19개로 감소한다.<sup>15)</sup> 평균인용 강도는 1980년에 8.8의 피크를 제외하고는 2에서 4이다. 반대로 커뮤니케이션 학술지가 문헌정보학 학술지에 대한 인용 강도는 1987년의 12와 함께 0에서 2사이에 있으며, 평균인용강도는 대부분 0 또는 1이다.

15) Borgman, c. & Rice, R. E. (1992). p. 405.

	Year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Citation strength											
Comm-Comm	1208	1041	1292	1214	1243	1343	1896	1930	1705	1660	1794
Comm-IS	2	2	1	0	1	0	2	1	1	2	12
IS-IS	2899	2605	3012	3543	3538	3563	3944	3794	4799	4699	4046
IS-Comm	0	11	6	35	6	0	25	4	17	37	19
Percent citation strength											
Comm-Comm	99.0	99.8	99.9	100	99.9	100	99.9	100	99.9	99.9	99.3
Comm-IS	0.2	0.2	0.1	0	0.1	0	0.1	0	0.1	0.1	0.7
IS-IS	100	99.6	99.8	99.0	99.8	99.3	99.6	99.9	99.6	99.2	99.5
IS-Comm	0	0.4	0.2	1.0	0.2	0.7	0.4	0.1	0.4	0.8	0.5
Mean strength per citation link											
Comm-Comm	25.7	20.4	21.2	18.7	20.4	19.5	20.8	23.5	20.8	19.1	22.4
Comm-IS	1	1	1	0	1	0	2	1	1	1	3
IS-IS	10.9	8.3	7.7	8.1	8.5	7.5	7.8	7	9.1	8.7	7.6
IS-Comm	0	3.7	3	8.8	1.5	3.6	3.5	1.3	2.1	2.6	4.8
Citation links											
Comm-Comm	47	51	61	65	61	69	91	82	82	87	80
Comm-IS	2	2	1	0	1	0	1	1	1	2	4
IS-IS	266	314	390	436	418	474	507	541	530	539	530
IS-Comm	0	3	2	4	4	7	4	3	8	14	4
Percent of citation links											
Comm-Comm	95.9	96.2	98.4	100	98.4	100	98.9	98.8	98.8	97.8	95.2
Comm-IS	4.1	3.8	1.6	0	1.6	0	1.1	1.2	1.2	2.2	4.8
IS-IS	100	99	99.5	99.1	99	98.5	99.2	99.4	98.5	97.8	99.2
IS-Comm	0	1	0.5	0.9	1	1.5	0.8	0.6	1.5	2.2	0.8

도표7.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연구의 인용 강도와 링크의 수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상호인용에 포함된 학술지를 보면 문헌정보학 학술지 57개 중 25개와 커뮤니케이션 학술지 20개 중에서 14개이다.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가장 많이 인용하는 문헌정보학 학술지는 ARIST,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ASIS Proceedings, Government Publications Review이며, 하나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학술지에 의해 인용된 문헌정보학 학술지는 JASIS, Library Quarterly이다. 문헌정보학 학술지에서 기사를 인용하는 기사를 가장 빈번하게 가진 커뮤니케이션 학술지는 Journalism Quarterly, Communication Research이며, 문헌정보학 학술지에

의해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세 개의 커뮤니케이션 학술지는 Telecommunications Policy, Journal of Communication, Communication Research이다.

## V. 결 론

최근의 Borgman & Rice의 연구는 서론에서 기대한 대로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의 학문사이에 일어나는 집중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1977-1987에 문헌정보학에서부터 커뮤니케이션 분야로의 인용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두 학문의 링크는 각 학문에서의 2-3개의 학술지에 해당되고 학문간 상호인용되는 학술지는 Journal of Communication, Telecommunications Policy, ARIST,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연구의 집중의 주제는 그 주제자체가 문헌정보학의 학제적인 성격의 규명이란 점에서 흥미롭지만 그 이면에는 이에 따른 실제적인 변화가 있다.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분야가 집중하고 있다면 각 학문에서의 학자들은 그 분야의 진정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학문과 교수(teaching)들 다에서 광범위하게 문헌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교수 인사위원회는 이러한 데이터를 각 학문의 보충과 새 교수인원을 모집할 때 사용할 것이다. 비슷하게 각 프로그램의 졸업생들은 그들의 고용가능성의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서개발을 담당하는 사서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학문의 범위를 결정하는 선정에 사용할 것이다. 초록과 색인잡지의 편집자들은 이러한 관계에 따라 다른 학문간의 경계선을 그릴 것이다. 한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지의 판로개척에도 변화가 있을 것

이다. 전문학회와 협회의 회원구성에서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회원들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좀 더 이론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결과들은 각 학문의 성숙도를 평가하는데 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연구의 집중 이외에도 다른 인접분야와의 집중의 문제도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그럼으로써 문헌정보학의 명확한 정의와 분명한 경계선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정 동열, 권 수영. " 문헌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연구의 학문적 연관성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Vol 8, No. 2, (1991). pp. 124-138.
- Anderson, J. D. & Belkin, N. J. , etc." Information science at Rutgers : establishing new interdisciplinary connections," JASIS Vol. 39, No. 5 (1988). pp. 327-330.
- Borgman, Christine & Schement, J. R. " Information science and communication research," in Information Science : The Interdisciplinary Context, J.M. Pemberton & A. E. Prentice (ed), New York, Neal-Schuman ,1990. pp. 42-59.
- \_\_\_\_\_ & Rice, R. E. "The convergence of information science and communication : a bibliometric analysis," JASIS Vol. 43, No. 6, (1992). pp. 397-411.
- Debons, Anthony & Horne, Esther , etc. Information Science : An Integrated View, Boston, G.K. Hall & Co, 1988.
- Jackson, M. M." Interdisciplinary doctoral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Hawaii," in Information Science : The Interdisciplinary Context, J. M. Pemberton & A.E.Prentice (ed), New York, Neal-Schuman,1990. pp. 90-97.
- Paisley, William." Information science as a multidiscipline," in Information Science : Interdisciplinary Context, J.M. Pemberton & A.E. Prentice, New York, Neal-Schuman,1990. pp.3-24.
- Rice, Ronald E." Citation networks of communication a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1978-1987," Proceedings of the 53rd ASIS Annual Meetings Vol. 27,(1990). pp. 208-212.

\_\_\_\_\_." Hierarchies and clusters among communication and library information science journal, 1977-1987," in Scholarly Communication and Bibliometrics, Chrisine L. Borgman (ed),1990. pp. 138-153.

Rubin, B.D." The communication-information relationship in system-theoretic perspective," JASIS Vol. 43,No.1 (1992). pp. 15-27.

\_\_\_\_\_ " Redefining the boundaries of graduate education," in Information Science : The Interdisciplinary Context, J.M.Pemberton & A.E. Prentice (ed), New York, Neal-chuman, 1990. pp. 70-83.



## A Study on the Convergenc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Communication studies

Hye-young Yoon\*

This paper focuses on issues in the convergenc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communication studies. Common research topics in both fields include scholarly communication, knowledge gaps, invisible colleges, diffusion of innovations, human interaction with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formation-seeking behavior, information theory, and the information society.

To consider these two disciplines in this broader context, this paper compares these two discipline's paradigms, suggests four models of convergence, and traces bibliometric studies performed.

This study may be of use to those studying scholarly communication or bibliometrics, to faculty constructing curricula in either of the disciplines, to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cience scholars seeking new areas of research, and to collection development librarians in drawing the boundaries of these disciplines.

---

\* Lecturer, Ewha Woman's University.